여수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적극 행보

내년 각 권역별 연구용역 진행
호남권 국립미술관 유치 부각
세계섬박람회장 후보지 제시
유휴공간 재활용 도시재생 등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며 국립미술관 지역 분관 확대를 위한 새로운 운영모델 마련과 함께 지역별 분관 설립을 위한 정책적 검토에 착수했다.

올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법적 성격을 '문체부 소속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운영재원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경기북부와 강원, 호남 등 전국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내년 '각 권역별 국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분관 후보지 선정 시에는 미술관 부지 확보 가능성과 운영비 분담 의지,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의 기능 수행 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해당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 문화예술 기반과 공간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내세우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 4월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 관계자들은 정기명 여수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장의 주제관을 분관 유치 후보지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유휴공간의 재활용을 통한 공간 리사이클링 및 도시재생'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차별화된 문화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수시 역시 해양도시 특성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토대로 분관 유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에 맞춰 '수요조사 대응 전략' 및 '여수만의 문화 정체성을 반영한 유치 논리'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는 여수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계와의 협업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유치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둔덕동 지사협, '어르신 세상보여주기 사업'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관내 저소득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세상보여주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영화 관람과 식사를 대접하는 둔덕동 지사협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어르신들은 영화 '승부'를 관람하고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혜란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르신에게 영화 관람은 소소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동적이고 행복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둔덕동 지사협은 연합모금 활동을 통해 1400만원을 마련해 반찬지원서비스, 한부모가정 생일 챙겨주기, 영양보충식 지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20일 여수시 돌산읍 일원에서 열린 돌산갓마을축제장에서 아이들이 '갓돌이 디폼블럭' 체험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저수온 피해 67억원 규모…복구계획 수립

85개 어가서 249만마리 폐사

전라남도 여수시가 최근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원규모 등을 담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사이에 발생한 저수온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해당 어촌계,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합동 피해조사반을 구성,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피해 양식장을 순회하며 조사했다.

그 결과 85개 어가에서 참돔 등 5개 어종, 249만마리가 폐사됐으며 67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피해 내용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접수했으며, 지난 8일에는 피해 복구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이번 복구계획이 해수부로부터 최종 확정되면 어가당 최대 5000만원 총 31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수산정책자금 이자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이상 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월동장지정, 양식수산물 정부수매 등 대응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수온에 이은 저수온의 피해로 많은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며 "이자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2025 갓섬피크닉' 축제 성료

전라남도 여수시는 지난 19일과 20일 돌산읍 일원에서 치러진 돌산갓마을축제 '2025 갓섬피크닉'이 2000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2회를 맞이한 갓섬피크닉은 '햇살도 마음도 쉬어갓'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이 함께 기획하고 즐기는 시민 주도형 축제로 운영됐다. 특히 시민기획단과 7권역 마을 이장들이 행사 준비부터 운영까지 적극 참여하며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마을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시작해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이어 올해 역시 더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그 가치를 입증했다는 평가다.

축제는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눈길을 끌었으며, 활짝 핀 갓꽃의 정취 속에 '갓섬도시락' 등 다채로운 메뉴들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또 갓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과 키즈놀이터, 갓꽃길 주변을 누비며 퍼즐 조각을 찾는 '갓섬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 참여형 '갓섬 레크레이션'까지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여수=이경기 기자

2025년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 개최

오늘 녹테마루카페서
시민·전문가 등 15명

전라남도 여수시는 23일 녹테마루카페에서 '2025년 여수시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정책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섬 지역 어르신들에게 목욕서비스·의료·식사·카페 체험 등 웰니스 체험을 통해 생활 복지와 정서적 치유가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섬에 복지를 잇다 효(孝) 나들이, 행복한 동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과제' 심사에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시민(정책수요자)과 서비스디자이너,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올해 6월까지 사례조사와 인터뷰, 아이디어회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정책디자인 결과물을 도출,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발대식은 국민정책디자인단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서비스디자이너가 서비스디자인의 개념 및 추진 방향 안내, 과제 운영 방향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섬 지역 어르신들에게 생활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치유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여수서 제25차 정기회 개최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협약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건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22일 9개 회원 시군 단체장과 80여명의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정기회를 여수에서 개최했다.

22일 전라남도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회는 회장 시군에서 개최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 정기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회원 시군 협력을 다지고자 특별히 여수에서 개최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대한민국 유치 확정 및 남해안 남중권을 개최 장소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섬박람회와 COP33 유치 관련 회원 시군의 응원을 부탁하는 한편, 오늘날 지방 소도시들이 맞닥뜨린 경기침체 및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남해안 남중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22일 여수에서 제2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장충남 협의회장(남해군수)은 "남해안남중권은 남해안시대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아름다운 자연·문화관광 유산을 보유한 지역 상생 발전의 대표 모델"이라며 "협의회가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현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동서화합과 영호남 상생 발전을 위해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 9개 시군으로 설립된 행정협의체로 체육·문화교류, 광역관광 활성화, 농특산물 공동 판매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